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원재(DS) 전담생산

- 휴온스글로벌 주도 컨소시엄 참여로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생산 및 보급에 기여
- 지난 3월 착공한 스마트 디지털 바이오팩토리 활용해 8월부터 생산 예정

항체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 대표이사 박소연)는 러시아 코로나 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에 컨소시엄 멤버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푸트니크 V 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감염병·미생물학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 19 예방백신이며, 계약은 (주)휴온스글로벌이 주관하는 생산계약 컨소시엄에 원재(Drug Substance, DS) 전담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난 3월에 착공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백신센터는 코로나 19와 더불어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건립중이다. 백신센터는 올해 8월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9월부터는 세계 최초로 2,000 리터 배양규모 배치의 본생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이전 및 제반 준비를 추진중이다.

특히 관계사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특허기술인 ALITA 스마트 바이오팩토리 Single-Use 시스템을 활용해 단시간내 백신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LITA 스마트 바이오팩토리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공정 운영 시스템으로, 공정의 실시오차와 인적오류를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공학적인 시스템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박소연 대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예방 백신으로 승인 받은 스푸트니크V의 백신 생산 및 개발협력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 동시에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백신 생산을 시작으로, 향후 출현할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어 "세계인의 염원인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 생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